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순환경제의 미래를 만나다

-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개최('25.7.2.(수)~4.(금), 코엑스 마곡)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요소인 순환경제의 미래 신산업·신기술을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종합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7.2.(수)~4.(금) 3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가성비 좋은 수단이다. 최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전(全)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순환경제는 위기가 아닌 오히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보고(寶庫)이다.

이번 행사는 크게 ①전시회, ②국제포럼, ③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①228개의 기업(기관)이 참여(329개 부스)하는 ‘전시회’에서는 혁신 기술,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②주한EU대표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포럼’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디지털제품여권(DPP)과 관련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③‘상생라운지’에서는 국내·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한 데 모여 상생의 협력 사업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7점) 시상·홍보,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중고 의류 교환 마당, △체험행사(직접 제작·수리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문신학 1차관은 “순환경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이라는 일견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순환경제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이상필 (044-203-4246)

□ (일시/장소) '25.7.2.(수)~4.(금), 10:00~17:00 /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

※ **개막식 행사 : '25.7.2.(수) 11:00**

□ (행사규모) 228개 기업*·기관 참여, 329개 부스 구성(역대 최대 규모)

* 상생라운지 참가기업 등 포함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산업연합포럼

□ (주요 구성) ①전시, ②국제포럼, ③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 ④정책 홍보 및 포상, ⑤신사업 모델 홍보, ⑥기업 지원(컨설팅) 등

<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

①전시	②국제포럼	③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
순환경제 대표기업들의 혁신 기술·비즈니스·제품 공개	EU 에코디자인을 주제로, 한-EU 정책 공유·협력 기반 마련 및 주요업종(섬유·배터리·전기전자)의 비즈니스 협력 분야 발굴	글로벌 순환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내외 수요·공급기업 비즈니스 협력 지원(파트너링)
④정책 홍보·포상	⑤신사업 모델 홍보	⑥기업 지원
순환경제 정책 및 지원 사업 등 소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	상생라운지 참가기업의 신사업 모델 홍보(피칭), 신사업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순환경제 활동에 필요한 제도 컨설팅

* 기타 체험행사 : 순환경제 활동(Reuse, Remake, Repair, Refill 등) 체험형 이벤트 및 단체 관람(도슨트 투어) 등